

마음이 뛰어넘어서 실천을 하는 데에 노력을 하라!

29면에서 계속

삼라만상에 생명들이 꼭 찾지 때문에 예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1(여)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당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꽃꽂이 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어떤 거사님은 화엄을 얘기하셨습니까는 저는 거기서 거대한 불바퀴를 보았습니다. 큰스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그 불바퀴가 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각각각색의 색깔로 이루어진 그 큰 하나의 나뭇, 그 어마어마한 나뭇의 도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꽃으신 분이,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보는 차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큰스님께 무사 이래로 물 한 방울도 보태짐도 줄어짐도 없는, 움직임도 없는 그런 언어도단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의 나뭇이 굳이 우리 현상계로 생각할 한다면, 감도 있으며 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아무 작용이 없을 것 같지만 무한한 작용으로 저렇게 나뭇의 세계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그 성품의 묘한 작용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허허, 맥이 알아듣기만 하면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 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먹어 보라 하는 뜻이죠. 즉 말하자면 보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말들은 모두 잘해요. '물이 컵으로 하나 가득 들어 있으니 이거를 먹어 보라.' 하고선 말들은 잘하시는데, 아무 말 없이 말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 먹고 갖다 먹일 줄은 모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내가 잘했다는 사람 잘난 거 하나도 없죠. 못난 거든지 잘난 거든지 부처님께서 일체를 다 다복하게 인연을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알고 보고 듣고 했다면 실천을 하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육조 스님은 십여 년을 노고를 했다 이거야. 그게 점수야. 면벽을 하는 것도 그냥 면벽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천지에서 내가 나를 던질 줄 알고 행할 줄 알고, 늘일 줄 알고 줄일 줄 알고, 그렇게 굴릴 줄 아는 바로 이름 없는 이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살이 지금 그렇게 안다면 '마음이 뛰어넘어서 실천을 하는 데에 노력을 해라. 말만 앞세우지 말라. 알았으면 해 보라. 길을 걸을 줄 알면 뛰어 보라. 뭘 줄 알면 날아 보라. 날아 보면 두루 돌아 보라.'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제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났다 잘났다, 여자다 남자다 이걸 떠나서, 권세가 있다 없다가 떠나서 이것은 마음공부니까, 하여튼 아무 말 없이 그냥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가 보세요.

질문자2(남) 스님! 이렇게 쉽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스님 뒤에 계시는 불상이 보기 좋아 선원에 다녔고, 그 다음에는 스님의 모습이 좋아서 선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더디더라 그거예요. 왜? 모습과 상은 분명히 내 생각을 만드는 것인데, 마음을 밝혀 주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속 스님께서 설해 주시는 그 법문을 되뇌다 보니 '모든 것을 눈 뜨고 보는 것 이전에 마음을 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계속 마음으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은 뒤에 계시는 부처님 상과 앞에 계시는 스님의 모습 이전에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분의 스님과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분의 부처님이 생각이 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시는 스님과 그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께 중심으로 계속 공양하

간해서 마음이 벗어날 줄을 몰라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말입니다. 아파트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 놨는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그려 놔는데 넓게 보이게끔, 나무도 넓게 선 것대로 그렇게 잘 그려 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았는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이 거기를 들어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철철 물 흐르는 바다였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우죽같이 들어서고 푸르르코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어느 어느 할 수 없는 일도 내 마음이 나를 수만 개로, 큰 일에는 수만 개를 내놓고 작은 일에는 조금, 거기 용도에 따라서 좀 던져 보라 이 소립니다. 이 몸 안에서 움직여 못하는 마음을 좀 튼튼 던져 보라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무엇을 잘라 내는데 그거를 마취를 하고 자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한번 이해를 잘해 보십시오.

걸어오면서 한 발 한 발 없애지는데

뭉가 남아서 고가 있으며 뭉가 남아서 업이 있겠습니까?



다 보니 더불어 제 마음 또한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니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제 상(相)을 때는 그런 모습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정진해 나가는 제 모습이 잘못 됐다면 가르침 바랍니다.

큰스님 모습을 또한 무시해도 안 되죠. 허허,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이 모습도 있어야 바로 상대성의 이론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습이 안 보여도 무효고, 또 몸이 만약에 죽는다면, 없어진다면 무효다. 정신만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니 무효다 이 소리예요. 또 정신이 없으면 몸이 송장이 되니까 무효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과 둘이 아니게끔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여여해야 된다고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 가지 들이고 나서 만 가지들 연구할 수 있고, 만 가지라는 숫자보다도 천차만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학자가 한 가지를 연구한다면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만 가지 천 가지 천차만별로 다 할 줄 안다, 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 도가니 속에서 뛰어넘질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도 몸뚱이 체 안에 딱

그 앞에 나무가 우거진 그림이 있고 물이 내려가는 개천이 있고 배 한 척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림에, 그래서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앉았대요. 그랬더니 수소를 다하고 나서 깨우더라고요.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못하리까 하는 소리에요. 무엇인들 못하리까. 이 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리까. 분리가 됐다가 같이 했다가 하면서도 그냥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꺼내도 꺼내도 좋지 않고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많아서, 나 아님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많아서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 꺼내서 쓸 때에 꺼내도 꺼내도 좋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큰사를 일으켜도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과학자들하고는 정반대의 크나큰 부처님의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지만, 지금 내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묘한 도리가 돼서 사람들이 몇 생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 느끼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를 아십니까? 어디 서 있는 사람인지, 하지않은 스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각색으로 나뭇은 까닭에 어떤 거라고, 위에 앉았다 아래 앉았다. 천하다 고귀하다, 지위가 높다 이런 것도 목살되는 자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죠? 때로는 아주 속상하고 갇혀 있으면 '아! 새처럼 좀 날아가 봤으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자유로이 날아다닐 거다 날아다니고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니 구족하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그렇게 천차만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걸음을 걸어서 올라왔는데 걸여움이 없이 걸여오지 않았습니까? 걸여오는 사리가 없이 걸여왔습니다. 한 발씩 떼어 놓으면 한 발씩 없애지면서 걸여왔습니다. 그 당시 당시 없애지는데 뭉가 걸여온 자리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해를 잘해 보십시오. 걸어오면서 한 발 한 발 없애지는데 뭉가 남아서

고라고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어서 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팔자 운명이라는 소리도 여러분이 지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라는 거죠. 그거를 굴릴 줄만 안다면 내 팔자야 할 것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할 것도 없죠. 내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흐르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나 아님이 없는 데 딱 나로만 생각한다면, 초, 조금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맘대로 왜 못합니까? 왜 도가니 속에서 찌들려서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만 합니까?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그럼 거기서 마음을 벗겨 내면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러겠죠. 마음을 던질 줄 알고 마음을 벗어나게 할 줄 안다면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그것이 모두 뭉가니까? 지금 마음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라 이 소립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몸을 이끌어 가면서 이 모두를 행하면 함이 없이 생활을 하니 고가 없고 세상에 남이 뭐래도, 이 천지를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군사를 늘여야 할 텐데 늘일 수가 없거든요. 옛날이야기 책에 있었던 얘기인데 다 모릅니다만 '박씨 부인전'이라던가 뭐, 예전에 얻어들은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초당을 죽 둘러서 노간주나무를 심었죠. 그 이파리 하나하나를 군사로 다 만들었다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딱 사람이 볼 때는 환상이지만 그냥 기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다 몰라가더라고요. 이게 방편 아닌 방편이다 이 소립니다. 책에 방편이라고 해 놓고도 방편 아닌 방편 이렇게 썼죠. 실천을 하면서도 그게 방편이고 방편이면서도 실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가. 헤아릴 수가 없이 크죠. 마음이라는 건 말로 헤아릴 수 없이 크죠. 그러나 말로 헤아릴 수 없이 작기도 하답니다. 그러니 일체 허공의 생명들의 마음이나 산하대지의 생명들의 마음이나 마음을 한데 합쳐서 좁쌀 알갱이에다가 전부 넣어도 손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꺼내서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다 풀어 놔도, 좁쌀 알갱이에서 다 꺼내서 풀어 놔도 손색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도립니다. 이런데 생활에서 좀 굴러서 쓰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그 마음 하나를 딱딱 굴릴 줄 몰라서 그냥 벌어지는 일 다 벌어지게 하고 죽을 맛이 나 가지거나 죽겠느니 살겠느니 한탄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7년 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하연 겨울 추천상품

- 매주 출발가능
-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기사 경비, 미안마비자 비용 포함
- 타사 비교필수 (호텔, 식당, 불자가이드 등)

- 황금 불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4박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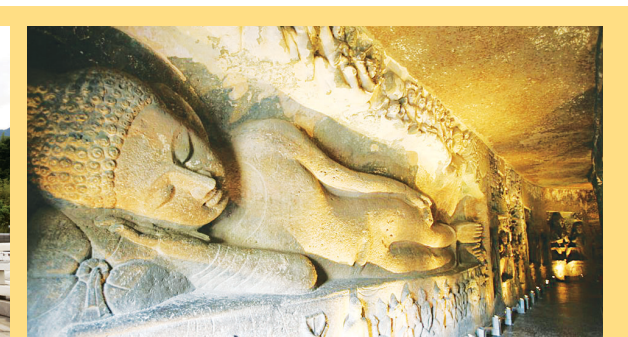
출발일: 3월 11일, 3월 21일

- 대만 3대 사찰순례 5일
- 대한항공 직항 부탄/네팔 8일
- (초특급 + 3대음선 포함) 방콕/파타야 5일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3 맞춤 순례 운영
-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리오스** 6일
대한항공 직항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출발일: 2월 16, 27, 3월 17

[3대성지 순례]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5월 26일, 6월 2일, 6월 9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 5월 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5월 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하와이 5일
동유럽 3개국 9일
서유럽 4개국 8일

매주 출발가능
매주 출발가능
매주 출발가능

